KOKKOS 12

2022 DEC
VOL. 249

개교70주년 70 SINCE 1952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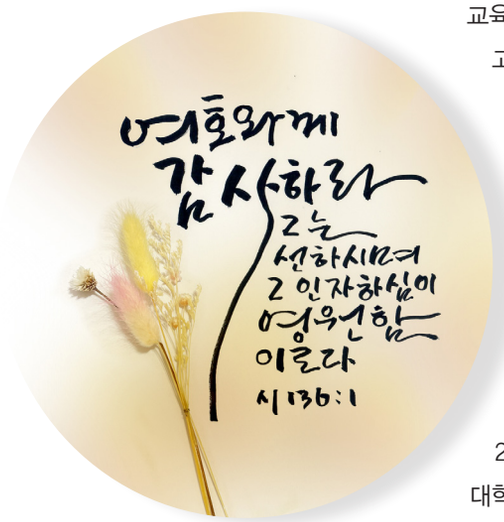
제3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양승호 부회장(왼쪽), 오동영 회장의 늠름한 모습. 하나님과 학우들의 꿈을 이루고 전하는 'Dream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관련기사 4면]

우리 대학 취업률 78.2% 로 역대 최고

전국 대학 취업률 순위에서 최상위 예상

사복 취업률 19%, 컴소 10.4% 광폭 상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편 136 편 1 절)



교육부 (대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는 우리 대학의 '2021 년도 졸업자' 취업률이 78.2% 라고 지난 12 월 8 일 발표하였다. 이 취업률은 역대 최고 기록에 속한다. 그동안의 취업률은 2018 년 72.9%, 2019 년 71.6%, 2020 년 74% 였다.

학과별로는 영유아보육학과가 95.2% 로 가장 높았다. 간호 87.8%, 사회복지 77.6%, 컴소 71.9%, 성서 53.8% 이다. 성서학과의 졸업자들은 많은 수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기 때문에 취업률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변도 있었다. 사회복지학과 (77.6%) 는 지난해 (58.6%) 보다 무려 19% 상승하여 기염을 토했고 컴소 (71.9%) 도 지난해 (61.5%) 보다 10.4% 상승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번 취업률을 전년 (2020 년도) 취업률과 단순 비교하면 전국 (187 개 대학) 4 위, 수도권 (71 개 대학) 1~2 위, 서울시 (38 개 대학) 1 위에 해당한다. 확실한 순위는 2023. 1.15 일 발표될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서 알 수 있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코로나 19 확산, 경제적 불황 등으로 악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성서대학의 취업률은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 준 셈이다. 강우정 총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에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셨다. 졸업생들의 노력과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취업까지를 책임져 준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성과를 이룩한 데에는 취 · 창업지원센터 팀의 밤낮 없는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 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 '2021 년도 졸업자' 란 2021 년 2 월 졸업자와 2020 년 8 월 졸업자를 말하며 취업통계 기준일은 2021 년 12 월 31 일이다.

매일성교

엘 샤다이 (창세기 17 장)

김정원 교수(성서학과)

아브라함이 75 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99 세 때 17 장 1 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로 나타나십니다. 자식에 대한 희망을 오래전 버렸기에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엘 샤다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샤다이의 의미는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들판과 평야" 의 뜻이며 유목민에게 푸른 초장은 생명을 잇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 샤다이로 울음을 달래주며 평안을 안겨주는 천국입니다. 아브람이 엘 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구약은 할머니가 애를 낳고, 신약은 처녀가 애를 낳는 책입니다. 할머니 사라가 낳은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라면, 처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역시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 월 성탄의 기쁨을 맞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시간 (카이로스) 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2 년을 돌아본다
"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 "

개교 70 주년 '일립대학' 체재 등 창학이념에 다가간 조직개편

「로뎀나무 아래」,「고승태홀」등 산뜻한 인테리어로 학생시대 열어

▲ 로뎀나무 아래

▲ 카페테리아

▲ 북스토어

개교 70 주년을 맞은 2022 년 , 코로나 시대를 접고 대면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언제 다시 코로나가 재연하여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학기가 시작되었다 .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왔다 . 그렇게 살아온 2022 년이 저물어 간다 .

1 학기 스타트는 BRC 의 낭랑하고 힘찬 말씀과 함께 시작됐다 . 아직도 강의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하나 학우들의 학습을 향한 열정은 종강을 앞둔 지금도 뜨겁다 . 돌이켜 보면 이 과정을 통해 거둔 결실은 모든 걸 가능토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 2022 년 코코스지에 게재되었던 캠퍼스의 모습을 조용히 되돌아본다 .

개교 70 주년의 해 강우정 총장의 신년사 . " 돌이켜 보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 (1 월)

' 유지충원율 ' 수도권 3 위 , (51 개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1 월)

행정체재 개편 _ 모든 교육을 일립 (一粒) 대학으로 묶어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대학의 정체성 강조 (2 월)

취업률 74% 서울시 소재 대학 중 2 위 (대학 알리미 사이트) (2 월)

「로뎀나무 아래」 개관 일립관 6 층 교수학습센터 리모델링 . 학우들의 쉼과 재기의 발판으로 (3 월)

전면 대면 개강 첫 시간은 오전 8 시 BRC 로 캠퍼스를 깨웠다 . (4 월)

FT 재개 교내에서 (4 월)

개교 70 주년 기념식 강우정 총장 기념사에서 세 가지를 다짐 (5 월)

故 서명수 집사 가족 1 억원 후원 (5 월)

「개교 70 주년 기념 감사 예배」 우리의 설립 의지 굳건히 지켜갈 것 ! (6 월)

「기도의 해」 기도 켐페인 전개 여름방학 55 일 **' 기도 한번 해보자 '**, 2 학기 **'153 기도운동 '** (7 월)

고승태홀 , 카페테리아 , 북스토어 리모델링 및 가구 구입 기증 . 서울광염교회 (조현삼 목사) (7~8 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장학금 3 천만 원 (8 월)

밀알훈련 재개 .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9 월)

지표관리자 제도 신설 충원율 등 29 개 주요지표 관리자 임명 (10 월)

체육대회 재개 한강시민공원 체육공간 (11 월)

에스토니아 국립오페라 소년합창단 공연

북유럽의 절제된 화음과 선율 돋보여

▲ 소년합창단원들이 북유럽의 매혹적인 선율을 선보이고 있다 .

에스토니아 국립오페라 소년합창단이 지난 12 일 로고스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 우리나라와 에스토니아가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공연이며 단원 20 명이 무대에 올랐다 .

합창단원들은 ' 산타들이여 다시 오라 ' 와 ' 성탄길 ' 을 아카펠라 화음으로 선보이며 분위기를 산뜻하게 이끌었다 . ' 언덕 위의 아베마리아 ' 에서는 단원 전체가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와 눈 맞춤과 스윙댄스로 교감하는 파격도 선보였고 ' 호수 위의 작은 섬 ' 과 ' 아버지와 아들 ' 을 절제된 음색과 무대 매너로 합창의 묘미를 전했다 . 이어서 우리나라 대표가곡 ' 청산에 살리라 ' 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 아리랑 ' 으로 한국인 한 (恨) 의 정서를 북유럽 고유의 담백한 서정으로 표현 ,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

에스토니아 공화국은 유럽 북동부 핀란드와 라트비아 사이에 있으며 수도는 탈린이다 . 국토면적 45,228Km 에 인구는 약 130 만이다 . 국립오페라 소년 합창단은 1971 년 창단돼 52 주년을 맞는다 .

제 39 대 총학

회장 오동영 , 부회장 양승호 학우 당선

▲ 총학회장 출마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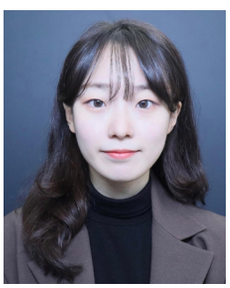
지난 30 일 제 39 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회장 오동영 (사복 3), 부회장 양승호 (성서 3) 학우가 당선되었다 . 이들은 단일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총 유권자 892 명 중에서 569 명이 투표 (63.79%), 519 명의 찬성 (91.21%) 을 받아 39 대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확정되었다 .

오동영 회장은 " 학우들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 드림 ' 과 학우가 학교의 'Dream' 이라는 뜻을 담은 공동체를 지향하겠다 . 반복되는 일상과 학업 속에서도 서로가 작은 위안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서로 사랑하는 성서공동체가 되도록 섬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

새롭게 출범하게 될 39 대 총학생회는 하나님의 꿈을 ' 드림 ' 과 학우가 학교의 꿈이라는 의미가 담긴 'Dream 총학생회 ' 를 사용하게 된다 .

4 학년 주관예배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신앙과 학문의 성숙함 공유의 시간



▲ 민예지 학우

졸업을 앞둔 4 학년 학우들의 2 학기 주관예배가 7~18 일까지 열흘간 진행되었다 .

민예지 학우가 10 일 '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수 1:1~9) 로 말씀을 전했다 . "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 여호수아도 동일하였다 .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이다 .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우리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개인의 능력치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미래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다 .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며 동행자이다 . 최고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도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간증의 최민혁 (컴소) 학우는 "13 년 전 처음 간 교회 찬양팀의 멋진 연주에 감동 받으면서 부모님 몰래 교회에 다녔다 .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처음 접한 신앙의 기초 (밀알훈련 , 채플 , 전도반 , 성서적세계관) 등을 배우며 감사했다 . 찬양팀과 여러 훈련을 통해 나는 성숙해졌다 . 13 년 전 교회가 낯설었던 내 스스로를 보며 지금은 긍지를 갖는다 . 4 년 후 여러분들도 달라진다 . 내 신앙을 활착시켜 준 우리 대학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 " 고 간증하였다 .

4 학년 주관예배 간증 및 설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주차 –

7 일 (월) ▲석준수 (컴소) ▲김예종 '어디서 시작된 신앙인가요 ?'
8 일 (화) ▲최서진 (영보) ▲김찬주 '위기 앞에서'
9 일 (수) ▲이성국 (사복) ▲기다혜 '그 형제들처럼'
10 일 (목) ▲최민혁 (컴소) ▲민예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11 일 (금) ▲윤예진 (영보) ▲송효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2 주차 –

14 일 (월) ▲심규리 (간호) ▲김소의 '사랑으로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신앙'
15 일 (화) ▲이은지 (간호) ▲김진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16 일 (수) ▲이재은 (간호) ▲문건희 '우리의 삶을 통해'
17 일 (목) ▲박윤미 (간호) ▲곽승우 '내 눈엔 주 밖에 안 보여'
18 일 (금) ▲백가현 (간호) ▲김태진 '예수를 바라보자'

2022 년 2 학기 총장 · 총학 간담회

교내 시설개선과 공간 확보 등 논의

시험 1 주전 도서관 24 시간 개방

▲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2 년도 2 학기 총장 · 총학 간담회가 29 일 오후 밀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강우정 총장, 강규성 부총장, 최은희 학사부총장, 김중완 행정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 행정부서팀장이 자리했으며 리본총학은 한혜원 회장과 권준영 부회장 등 임원 20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내시설 개선과, 공간 확보, 도서관 개방, 채플 관련 등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 **총학** 후문 24 시간 개방과 낡은 사물함 교체 및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

▲ **답변** 개방 시간을 늦추도록 하겠다. 다만 공원에서 노숙하는 이들의 학교 접근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율하겠다. 사물함은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이며 화장실은 더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 **총학** 시험 1 주일 전 도서관을 24 시간 개방해 달라, 기숙사 내의 공용 시설물 (세탁기 , 건조기, 건조대 등) 추가 배치 및 옥외 계단 보강 작업 등이 필요하다.

▲ **답변** 시험 1 주일 전 24 시간 개방을 즉각 실행하겠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기숙사 1 층 내 적절한 장소에 건조기 설치 및 전체 공간의 청결화에 더욱 힘쓰겠다. 외부계단은 방학 기간에 보수하고 낡은 조명등까지 교체하겠다.

▲ **총학** 학회실 등의 공간이 필요하고 총학실 내 낡은 바닥면 보완과 각 학회 임원에게 소정의 마일리지 제공이 요구된다.

▲ **답변** 공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한된 면적 안에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고 총학실 바닥은 점검 후 보수 계획을 세우겠다. 학회 임원 마일리지 요청 건은 예산 상황을 살펴본 후 답변 하겠다.

▲ **총학** 기숙사 월요일 새벽예배 참석에 어려움 (알바 및 기타) 이 있는데 채플 출석일수 (1~3 일자 100%) 별 완화책이 요구된다.

▲ **답변** 기숙사 새벽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며 예배 자체를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 채플 일수 조정은 해마다 반복된 사안이다. 총학임원들이 말하는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우리대학 정체성을 생각하면 채플의 생활화가 당연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 이 부분은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학우들은 학우들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대로 결정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다'

전도반 플로깅, 지역사회 청결에 참여

▲ 전도반원들이 근린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지난 16 일 (수) 교목실과 지역사회임팩트센터 (센터장 안정선) 가 실시하는 플로깅이 39 개 전도반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구간은 노원역에서 북서울미술관에 이르는 동일로와 근린공원 주변, 당현천 산책로 일대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에 참여했다.

학우들은 전도지가 아닌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각 전도반별로 정해진 구역 내 가로변 화단과 상가 주변을 비롯해 발길이 덜 미치는 곳곳의 크고 작은 쓰레기를 줍고 담았다. 학우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본 많은 주민들도 " 성서대학에서 나왔나요 ? 수고 많이 한다 "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김지현 (성서 3) 학우는 " 우리가 지역 내 쓰레기를 줍고 청결하게 하는 작업 자체가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 사랑의 실천 " 이라고 말했다.

안정선 교수는 " 이번 플로깅은 우리대학 혁신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학우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을 돕고 섬기는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하였다."

이한영 교수 퇴임

'가장 성서대학다움을 보여줬다'

▲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한영 교수

이한영 (기초교양교육과) 교수의 정년 퇴임식이 23 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강규성 교목실장은 설교에서 "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2 가지 말씀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 이었다 . 그는 " 이 교수가 성서대학에서 보여준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의 헌신은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한 모습이었다 " 고 말하고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

이한영 교수는 퇴임사에서 "20 년간 사랑을 베풀어 준 성서공동체에 감사하며 이 순간까지 소임을 다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 고 말했다 이어 " 우리 대학은 하나님의 복음전파를 위한 대학으로써 그동안 갖은 풍상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명을 담당해 왔다 . 앞으로도 이 본질을 변함없이 완수하길 바란다 " 그는 고별사를 마치며 참석자들에게 같이 구호를 크게 외치자고 말하고 " 성서대학이여 영원하라 !" 를 외치자 이를 모두 따라 하면서 장내는 한 순간 감동의 전율이 흘렀다 .

강우정 총장은 감사 인사에서 " 이한영 교수는 뼛속부터 성서인이었다 . 설립자와 학교 설립 때부터 대 (代) 를 이어 충성스런 사명을 실천하며 섬김을 다했다 .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 그의 대표 기도는 학교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넘쳤고 총장을 향해 지혜와 분별력을 넣어 달라며 용기와 힘을 샘솟게 했다 . 그는 우리에게 가장 성서대학다움을 보여줬다 " 며 ' 주 믿는 형제들 '(찬송가 221) 을 직접 불러 퇴임을 아쉬워하였다 .

만학도 학우들의 학업 고충을 듣다

방학기간에 PPT 개설 등 검토

학업지속지원팀이 지난 16 일 만학도 (50 세 이상) 학우 대상으로 NSLB 공유 확산 및 학업 향상을 돕는 간담회를 복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만학도 학우들이 학업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등이 건의되었다 .

▲ 활용도 높은 PPT 과목을 추가해 주면 좋겠다 .

과목을 새로 개설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다 . 교수학습센터가 방학기간에 PPT 개설을 검토하겠다 .

▲ 로고스홀에서 채플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싶다 . 그러나 찬양팀의 예배 준비 때문에 어렵다 .

찬양팀에게 협조를 구하겠다 .

▲ 모친 간호 문제로 BRC 참석이 어렵다 . 녹음이나 필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면 좋겠다 . 영어성경과목도 개설하면 좋겠다 .

사정이 안타깝다 . 성서학과에 전달하겠다 . 영어에 능통한 성서학과 교수와 동아리 개설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겠다 .

▲ 학생식당 퀄리티가 안 좋은데 질을 높이면 좋겠다 .

식수인원이 적다보니 악순환의 연속이다 . 업체 및 관계부서와 묘안을 찾겠다 .

강규성 부총장은 만학도 학우들의 제안에 공감하고 사안에 맞춰 관계부서와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장에는 10 명의 만학도와 강규성 부총장 , 최육열 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장 , 이성아 NSLB 교육지원단장 등 10 명이 참석했다 .

BRC 연합 종강 예배 ' 진정한 성서인들 '

“우리대학 자부심이며 존재의 이유”

▲ BRC 연합 종강예배를 마친 학우들과 교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성서학과의 BRC(Bible Recording Class) 연합 종강 예배가 12 월 2 일 갈멜관 305 호에서 진행되었다.

김현광 학과장이 ' 그리스도의 복음 '(갈 1:6~10) 으로 말씀을 전했다. " 지난 1 년간 힘든 BRC 과정을 잘 마쳤다. 말씀을 읽고 훈련하면서 복음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왔다. 여러분은 성서대학의 엔진과 같은 사람들이다 " 라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우정 총장은 학우들에게 " 힘든 BRC 과정을 잘 마친 여러분은 성서대학의 보배이며 성서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말씀의 기초위에서 복음전도자로서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기를 바란다 " 고 격려하였다. 그는 이어 지난 1 년간 BRC 를 섬겨 준 섬김이 14 명과 담당 교수 2 명의 노고를 칭찬하며 경의를 표했다.

황광민 학우가 " 처음에는 BRC 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사건 속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길을 확신하게 됐다 " 며 간증해 주었다.

BRC 지도교수와 섬김이는 다음과 같다.

△ A 반 지도 : 박태수 교수

▲기다혜 ▲김민재 ▲김수아 ▲김은수 ▲이주찬 ▲조은수 ▲최주현

△ B 반 지도 : 최사랑 교수

▲문건희 ▲강준구 ▲나 단 ▲설예찬 ▲이다니엘 ▲이하은 ▲추요셉

영보 , 교재교구전 40 개 작품 선보여

홍시은 학우 , 개인 • 팀 1 등 휩쓸어

▲ 개인부문 1 등상에 선정된 홍시은 학우가 상장을 받고 있다.

영유아보육학과의 교재교구전이 24 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공모전에는 개인작품 32 개와 팀으로 제작한 작품 8 개가 선보였다.

개인부문 1 등은 홍시은 학우 (영보 2) 의 ' 꼬물꼬물 만져보아요 !' 가 차지하였고 김규영 (2) 학우의 ' 생존가방 꾸리기 ' 가 2 등에 선정됐다. 팀별 부문은 최수아, 홍시은 학우가 출품한 ' 뽀득뽀득 세탁기 ' 가 1 등상의 기쁨을 누렸다. 2 등은 ' 노아의 방주 ' 와 ' 알록달록 선물상자 ', 3 등은 ' 바다 새울 이름찾기 ' 가 수상하였다.

개인과 팀별 부문 1 등을 차지한 홍시은 학우는 " 아이들의 놀이습관과 행동반경을 고려한 눈높이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었는데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교재교구전은 영유아보육학과 2 학년 학우들이 참여하는 학습 기량의 장이다.

2022 ‘영보인의 밤’

청춘의 끼와 흥 녹여내

▲ 각 팀별 대표들이 무대에서 브랜드 알아맞히기에 참여하고 있다.

2022 년 영보인의 밤이 하원학회 (학회장 김가람) 주최로 24 일 오후 7 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재학생 100 명과 동문 30 명이 참석하였으며 팀별 대항전 및 장기자랑과 영보라, 경품 추첨 순서로 이어졌다.

일상의 생활 브랜드를 순발력 있게 제시하는 팀별대항전을 시작으로 솔로와 혼성듀엣의 빼어난 가창실력, 댄싱팀의 현란한 끼가 녹아든 장기자랑이 분위기를 뜨겁게 끌어올렸다. 2 명의 DJ 가 청춘들의 고민을 대화로 풀어가는 영보라 (**영**유아**보**육학과 **라**디오) 는 신선한 방식과 현실적 내용으로 눈과 귀를 자극시켜주었다.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코로나로 2 년간 중단된 ' 영보인의 밤 ' 재개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으며 장현진 학과장이 성숙하고 귀한 영보인으로 거듭나 줄 것을 기도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학우들은 선후배와 교감을 넓혀서 좋았고 잠시나마 청춘의 끼와 흥을 녹여낸 축제의 날이었다며 박수를 보냈다.

간호학과 ' 제 11 회 간호학술제 '

김조자 교수 , 연구열정 높이 평가
"임상현장까지 이어지도록"
최우수 논문 , 김호경 학우 등 8 명

▲ 김호경 학우가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우수 연구논문).

간호학과가 주최하는 ' 제 11 회 간호학술제 ' 가 17 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 3 학년 56 명의 학우가 팀을 이뤄 7 편의 학술논문 발표와 2 학년 보건교육 포스터 13 편이 전시돼 간호학과만의 풍성한 학술잔치를 확인시켰다 .

박정현 (3)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논문발표에서 최우수 논문은 김호경 학우 등 8 명이 연구한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 셀프리더십 , 비판적 사고성향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장인순) 이 선정됐다 .

포스터 최우수상은 박은서 외 4 명의 학우가 만든 ' 낙상예방교육 ' 에 돌아갔으며 6 개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 사도바울은 모든 영적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 논문은 간호대학생의 학습 , 자아존중 , 대인관계 , 능력 등으로 시작하여 간호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능력 모두는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주를 위해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 고 격려하였다 .

김조자 교수는 총평을 통해 학우들의 스스로를 향한 연구 시도가 신선했다 . 연구의 방법과 통계 수준 향상도 적절하였다 . 일부 변수 설명이 미흡한 것만 제외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전문인 못지 않았다고 말했다 . 그는 " 이러한 연구 열정이 임상현장에서도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 " 고 말하였다 .

이에 앞서 이은주 (노원구 보건소) 소장이 ' 공공보건과 코로나 19' 를 주제로 간호리더쉽 특강이 이어졌다 .

논문과 보건포스터의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 셀프리더십 , 비판적 사고성향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김호경 ▲안지은 ▲유하은 ▲윤예원 ▲이윤서 ▲이윤지 ▲이예원 ▲이정윤

◈ **우수상**

「간호대학생의 교수 – 학생 상호작용 , 그릿 및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예은 A ▲구본주 ▲문혜진 ▲박정현 ▲안민호 ▲이가현 ▲이예은 B ▲이하람

◈ **우수상**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 학습실재감 , 성취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은채 ▲김소미 ▲김민지 ▲김산 ▲나예린 ▲문정원 ▲안성민

◈ **포스터 최우수상**

「낙상예방교육」

▲박은서 ▲김효민 ▲최서윤 ▲박혜원 ▲신채원

최우수 ' 이투아투 ' 팀
' 진동알람매트 '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 박성범) 주관 창업경진대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 이투아투 ' 팀의 ' 진동알람매트 ' 가 선정되었다 . 팀원 4 명 (윤은해 , 임현진 , 전선우 , 최준서) 전원이 영보 1 학년으로 당찬 기개를 보여줬다 . 공모전에는 8 개 팀이 참여하였다 .

진동알람매트는 알람소리에 기상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매트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시켜 설정된 알람이 매트를 진동케 하여 깨우는 제품이다 . 증가하는 2030 세대의 1 인 가구와 자취생 및 청각장애인까지 시장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 이투아투 팀 전원은 1 학년이다 . 우수상은 컴소학과 김예나 외 3 명 (난리법석종민서 팀) 의 ' 마트 제품 실시간 음성 안내 앱 ' 에게 돌아갔고 ' 돌고래 ' 팀과 ' 소휘와 애완용 ' 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

창업경진대회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개선 및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출발 , 아이디어와 창업을 연계시켜 학우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을 불어넣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 최우수상 (120 만원), 우수상 (100 만원), 장려상 (60 만원) 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

정년퇴임 **이한영 교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INTERVIEW

▲ 정년퇴임 소감은 ?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네요. 전임강사로 임용된 첫 학기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암 투병을 하며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년퇴임까지 교직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는데 ...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22 년간의 교수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지나고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

▲ 해마다 음악발표회를 가졌는데 힘든 점과 보람은 ?

매해 9 월 (혹은 10 월) 에 독창회를 개최했는데, 까다로운 공연장 대관신청으로 시작하여 레파토리 선정과 프로그램의 구성 등이 힘든 첫 단계의 작업이었어요. 그 단계를 마치면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노래연습하고, 녹음하여 들으면서 셀프 모니터링을 하고, 곡의 구조 및 원어 가사를 암기하는 중요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름방학 중이라 강의가 없으니 목을 쉬어주면서 노래연습만 할 수 있었기에 방학기간이 참 고맙기도 했지만, 저에게 여름방학 기간은 실제로 방학이 아닌 고된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연습한 만큼의 성공적인 무대로 독창회를 마무리했을 때에는 참 기쁘고 또 감사했어요.

▲ 나에게 음악이란 ?

교회에서 어린이성가대원으로 저의 음악인생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음악은 제 삶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몸이 매우 허약했었는데, 성악을 공부하면서 복식호흡을 통해 날로 건강해졌고 음악이 제 생활이었기에 암투병에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 음악초보자가 클래식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려면 음악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자주, 많이 듣다 보면 기악음악이든 성악음악이든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곡을 찾게 되고, 그 곡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같은 장르의 다른 음악과 여러 매체의 연주를 폭넓게 애호하며 감상하게 되죠. 저는 KBS 클래식 FM (93.1 메가헤르츠) 을 항상 켜 놓고 듣는데 참 좋아요. 강추합니다 !!

▲ 퇴임 후 계획은 ?

봄에 조금 긴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바쁘던 생활에서 놓이면 공허함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요. 좀 적응이 되면 작은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찬양배움터를 운영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음악을 공부하기 힘든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들을 키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 남기고 싶은 말은 ?

한국성서대학교와 함께했던 22 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음을 감사하며, 한국성서대학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계속 전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78.2%의 기적

78.2% 엊그제 발표된 우리 대학의 취업률이다. 우리대학 역사상 최고이고 아마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도 1등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성범 취 · 창업센터 센터장이 아침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침부터 웬일일까. 생글 생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취업률이 78.2% 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나는 벌떡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작년 우리가 74% 로 전국 1, 2등을 다투었는데 78.2% 라니! 코로나 상황으로 청년 취업률이 바닥이라는데 진짜 기적 같은 소식이었다.

총장은 지표에 목매어 산다. 대학을 쥐락펴락하는 교육부는 대학을 지표로 평가하고, 지표로 재정지원을 하고, 지표로 대학의 문을 닫기도 한다. 오죽하면 이 지표 숫자 때문에 평가에서 탈락한 여러 대학 총장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을까. 우리 사회도 지표가 그 대학 교육의 질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취업률은 지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100점 만점에 20점이나 배점된 중요한 지표인데 이런 성과를 낸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이 떠올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감사를 돌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소규모 대학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70년을 살아온 대학. 고운 모양도 없고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대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큰 축복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개교 70주년이라고 하지만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쳐 번듯한 행사 한 번 못하고 지낸 한 해가 너무 안쓰러웠는데 연말에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다니 우리 잔이 넘치고도 넘친다.

기도와 사랑으로 학우들을 섬겨 오신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업준비를 시키느라 다음 날 면접 갈 학생을 밤 10시까지도 붙잡아 놓고 될 때까지 반복 연습을 시키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총장의 편지 마지막을 사랑하는 학우들에게 전합니다. "애들아! 잘 했어 수고 했어. 우리를 신뢰하고 순종해 주어 고맙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Merry Christmas!"

직원 컬럼
민경은 컨설턴트(취창업지원센터)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첫 직장에서 만난 동료 선생님과 반가운 통화를 하며, 나의 첫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았다. 대학 졸업 후 처음 시작한 직장 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은 날것인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옆에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낯설고 힘든 사회초년생 과정을 잘 헤쳐 나올 수 있었다. 그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로 나는 다듬어지고 성숙한 직장인으로 거듭났다. 이후 나 역시도 주변 동료들과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겼다. 또한 내가 가진 강점과 기량을 키워가며 업무에 잘 녹여낼 수 있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직장 내 나에 대한 평가는 따뜻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퇴사한 지금도 그 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

누구나 처음 직장생활은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이후 본인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고 약점은 철저히 보완한다면 분명히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몇몇 학우들이 '면접 당일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풋풋한 강점을 찾아내서 들려준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귀한 멘토와 인연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라. 분명 잘 할 수 있다 등등의 학우를 지지하며 용기 북돋아 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앞으로도 맺게 될 소중한 인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에게 힘찬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다가올 2023년에는 더욱 힘차게 솟구치기를. 파이팅!'

교수 컬럼
김주아 교수 (간호학과)

간호사의 직업적 소명을 알기까지

20 여 년 전 간호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많은 학업량과 과제에 '내가 왜 간호학을 선택했지?' 같은 진지한 고민조차 할 수 없었다. 다른 동기들처럼 4 년간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다들 병원에서 일을하니 나도 병원에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간호사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고된 일이다. 환자 돌보는 것 외에도 기록, 물품 확인, 추가되는 검사와 처방약 확인 등 많은 업무를 하고도 제시간에 일을 마치기란 쉽지 않으니 말이다. 나이팅게일이 간호를 소명이라고 했지만, 나는 임상에서 일하는 동안 간호를 소명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의 전공이 간호학이었고,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니 관련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소명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몇몇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내게도 간호가 소명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박사과정 중 만난 환자분의 절절한 얘기를 들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깨달았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수술실 들어가는 환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 주고, 아파하는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주었을 것이다.

지금은 임상을 떠나 이곳, 한국성서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나의 소명을 실천하려 다짐한다. 대학원생 시절 한 교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간호에 한 번 발 딛으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진정한 의미를 나는 간호사가 된지 20 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외래교수 컬럼
표길홍 교수(성서적 세계관)

지난 여름의 흥미로운 기억

포천은 첩첩산중 강원도만큼이나 산이 많다. 그래서인지 차도에서 야생동물을 쉽게 목격하고 고라니는 로드 킬(road kill) 당하는 주요 대상이다. 출몰지역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사고는 여전하다. 기억에 사라질만하면 마주치는 고라니의 희생이 운전하는 내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렇다고 여름날의 운전이 마음 무겁고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많은 야생동물만큼 이름 모를 풀벌레도 마주치기 때문이다. 올여름은 이름 모를 날벌레의 흥미로운 만남이 추억을 남겨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앞 유리에 날벌레 한 마리가 시야를 가리고 있다. 본능적으로 와이퍼를 작동하려다 멈칫했다. 지난번 겪은 사고(?)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와이퍼 작동에 벌레가 깔려 즉사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날아가기를 바라고 내버려 두었다. 자동차가 속력을 내면 바람의 저항에 날벌레가 떨어져 나갈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당황스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시속 80Km 가 되었는데 벌레는 미끄러운 유리창에 그대로 버티고 있다. 그것도 애처롭게 바람의 세기에 날개가 꺾인 채 버텨내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저 조그만 벌레가 80km 로 달리는 차의 유리창에서 버텨내고 있지? 날벌레의 저항력이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흥미로웠다. 날개가 있으니 적절한 저항일 때 날아가면 될 텐데... 유리창에서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죽을 둥 살 둥 버텨낸 게 아닌가 싶다. 작은 생명체의 의지가 놀랍기도 하고 살리려던 나의 배려가 정작 날벌레를 모진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다. 그날 아침 신의 존재 같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안간힘으로 버텨내는 벌레로 투영되었다. 그날 기도는 이 말씀이 이끌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최정귄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진정성이란

"그럼 목사님이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 줘요"

지난 6 월, 가을 부흥회 강사를 섭외하려고 삼일교회 특별새벽기도회 강사로 온 김용훈 목사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요청입니다. 아들이 사는 시애틀에 갔다가 워싱턴을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모신 김용훈 목사님에 대해 제가 얘기 할 내용은 많은데 2 가지만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 입니다. 김 목사님은 이민 교회에서 보기 드물게 한 교회에서 34 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민 교회를 섬겨봐서 장단점을 잘 압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이토록 오랜 기간을 목양하는 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말은 내부의 어려움만 아니라 외부 유혹까지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목회를 잘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세속적 용어로 스카웃 요청이 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목양하려면 그런 유혹에 마음이 기울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과 오랜 교제를 통해 이 분이 그러한 요청을 어떻게 거절하며 자리를 지켜왔는지 알기에 그분의 목양이 귀해 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내노라하는 대형교회 부름을 거절하고 자신의 목양지를 부르심의 자리로 살아 온 겁니다.

두 번째가 '진정성' 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를 알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목양을 서로 꿰뚫어 보게 됩니다. 목양의 세월이 길면 말하지 않아도 진실과 허식이 무엇인지 마음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김 목사님 설교의 장점은 화려한 어휘나 웅장한 언변이 아닙니다. 대신 그의 말은 진정성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크고 무거워 보이는 언어를 쓰면서도 새털처럼 가벼운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쉽게 보여 누구나 알 것 같은 말이지만 생각할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말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설교는 진정성에 있습니다. 이 진정성을 가장 잘 아는 부류가 청년들입니다. 삼일교회가 청년들 많기로 소문난 교회인데 김 목사님을 다시 강사로 부르고 싶다는 요청의 말을 듣고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온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통해 주실 위로와 사랑의 언어가 온 가정과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네 번의 집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01

정채봉

만 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https://blog.naver.com/stitch_weed_me/220693156370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생각한다. 마주쳐 오는 수많은 만남을 무심히 보내지 않는 마음,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숱한 시간을 헤아리는 마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긴 삶의 전부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제, 또다시 만남의 본(本)이 더하여진다. 바로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다. 시들었다고 버리거나, 힘이 닳았다고 던지거나, 금방의 만남을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지우개 만남이 아니라,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환대(歡待)는 사람을 흥(興)하게 한다.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30호

제목 : 모질이들

작자 : 최정권

모질이는 우리 친구들 별명입니다. 사전에서는 모질이가 바보의 방언으로 지능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인 친구들은 다 나름 각자의 교회에서 영적 리더로써 크고 작은 결정을 해 온 사람들입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백전노장. 이 친구들 공통점은 세상에서는 그다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평생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다보니 세상물정에 어두운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KN 이 KIA 자동차의 새로운 로고인지 몰랐습니다. KN 이라고 읽는 저를 보고 누군가가 알려 줄때까지 KN 자동차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항변하는 건 그게 어떻게 기아(KIA) 냐는 겁니다. KN 이지.. 비슷한 성향의 친구 목회자는 제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 학원과 학교도 모르고 부동산 계약서 한 번 써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힘든 게 자동차 관리입니다. 그 전까지 교회에서 처리해 준 일을 직접 하려니까 힘들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 목회자가 나름 전철로 가보겠다며 퇴근시간에 전철을 탔다가 길을 잃고 결국 집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줘 아내와 딸이 웃으며 데리러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직원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아내를 찾는 저를 보게 됩니다. 늙어가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길에서 본 그들의 행동거지가 다 아내 없이는 모자란 남편들 같습니다. 남자들은 나이 먹어 가면서 모질이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코로나 한주를 지내면서 더욱 아내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사진반 동아리「PHOTAKETO」전시회

" 당신의 바다는 안녕하신가요 "

우리대학 사진반 동아리「PHOTAKETO」(회장 정현빈) 가 지난 23~24 일 잔디마당에서 'Falling, Fly Fly' 를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가졌다. 사진반 학우들이 주제에 따라 직접 촬영한 작품 24 점이 전시되었다.

사진전을 기획한 양희석 (성서 3) 학우는 " 코로나로 삶이 'falling' 하는 것을 느낀다. 푸르른 날개를 펼치고 싶었다. 'falling' 이 아닌 청명한 가을 하늘로 'fly' 하고픈 갈증을 이미지에 담아 투영해 보고 싶었다 " 고 밝혔다.

정현빈 학우는 ' 침몰과 공허 ' 에서 " 산산이 부서지는 하얀 파도가 나를 덮쳐온다. 그저 하염없이 깊은 물 저 아래로 떠내려간 채 한참을 잠겨 있을 뿐이다.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또 한참을 가라앉는다. 물을 머금은 듯 내 몸이 무겁다. 당신의 바다는 안녕하신가요 "

이틀간 진행된 사진전에 재학생 대부분이 관람할 만큼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사진전은 카카오톡 채널 ' 포테익토 ' 에서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 정현빈 (영보 3) ' 침몰과 공허 '

한국성서대학교 11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12,600,000원)

박강재(재학생)	5,000,000원	김인화(동문)	1,000,000원	사회복지대학원	500,000원
반종원(법인이사장)	2,000,000원	현희철(동문)	1,000,000원	이광삼(동문)	100,000원
이성화(총동문회장)	2,000,000원	하이플랜(주)	1,00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18 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2,160,000원)

일반 5구좌 김종호(학부모) / 본도시락 중계점 **동문** 2구좌 김인화 / 1구좌 강해든이 / 백연옥 / 이건호 / 진은숙 **재학생** 1구좌 이은수 / 이혜정

일시납 누계 (2022. 3.1~11.20) 270,306,780원 / 약정자 누계 (2022. 3.1~11.20) 164구좌 / 연간납입예정액 19,680,000원

대학
어린이집

초등학교 진학 학부모 간담회

▲ 초등학교 진학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어린이집은 지난 25 일 졸업을 앞둔 7 세의 소망 · 사랑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진학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1 학년 부장 교사를 초청,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들었다. 학부모들은 간담회 이후에도 자녀들의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될 부분을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자녀의 성격과 행동유형을 고려한 맞춤 질문이 이어지는 등 현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현직 교사에게 직접 들으면서 관련 궁금증이 많이 해소 되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학어린이집은 이후에도 초등학교 진학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면 즉시 제공하도록 학부모들과 연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은혜반 김예빈 교사**]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한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수상

▲ 시상식에서 한가인 동아리가 이사장상을 수상하고 있다.

지난 26 일 '제 23 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우리 복지관의 청소년공동체 '한가인'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한가인(한.가.人 :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월계복지관에서 2014 년부터 활동해 온 청소년봉사동아리로 9 기째를 맞고 있다. 매주 토요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1:1 맞춤 한글교육과 일상생활에 도움될 은행, 지하철 등 상황별 한글교재를 제작 배포해 왔다. 단순한 한글 교육차원을 넘어 글자를 몰라서 겪는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다.

한가인은 수상소감에서 "어르신들과 봉사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와 귀한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봉사 동아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조직팀 / 이유리 사회복지사**]

꿈빛
어린이집

감사 나누기

▲ 영유아들에게 복지관 업무를 설명하는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

지난 22 일 '감사 나눔의 날'을 맞아 영유아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돕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가정과 연계한 쌀 모금운동을 통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펼치기로 하였다.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쌀은 나눔 온도계에 보관하면서 쌀이 모여지는 과정을 공유했다.

이렇게 모인 쌀은 방앗간에서 떡국떡으로 만들었다. 영유아들이 떡을 직접 포장하고 '오래 오래 사세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등의 사랑이 담긴 편지와 함께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다.

만 5 세 유아들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에게 복지관의 주 업무와 일과, 떡의 사용처를 질문하면서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 어린이집은 앞으로도 이웃과 사랑을 나눌 다양한 방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목련반 정소윤 교사**]

성서
대학교회

추계 부흥사경회

▲ 부흥사경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훈 목사

성서대학교회는 4~6 일까지 추계 부흥사경회를 진행하였다. 강사는 미국 워싱턴 열린문장로교회 김용훈 목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다. 우리를 인도해 준 창조주 하나님께 삶의 방법 안에서 영광을 드높이는 신앙인의 본질과 방법을 안내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이와 함께 17 일 수능시험을 보는 21 명의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생의 값진 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을 경험하며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여지길 간구하였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주의 향기를 나눠가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를 소망한다.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클로버 부모교육을 통한 소중한 나

▲ 부모들이 자신을 알아가는 애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대해 배우고 있다.

지난 17 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클로버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바쁜 일상에 잊허진 자신을 돌아보며 '부모'가 아닌 '나'에 대해 알아보기다.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의 긍정적인 가치와 강점을 발전시켜 더 성숙한 인생관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알아보기를 가졌다. 드러난 자신의 성격유형이 주변인과의 관계설정, 나아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형성 기반을 마련토록 안내하였다. 학부모들은 "애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드러난 개별 성향을 보며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육아 고민에 대한 방법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전하였다. **[맑은반 용혜수 교사]**

노원육아 종합지원센터

겨울을 즐겨요

▲ '겨울을 즐겨요' 주제의 체험공간 모습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11 월 15 일부터 내년 2 월까지 영유아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겨울을 즐겨요' 주제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놀이할 수 있으므로 양육부담 경감 및 다양한 놀이 환경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시켜 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체험은 놀이 위주로 구성하였다. 컬링, 눈치우기, 눈싸움, 겨울철 먹거리 장터(붕어빵, 호떡 등), 썰매타기, 에어바운스, 이글루 꾸미기, 얼음왕국 포토존 놀이로 구성, 흥미진진한 겨울을 즐길 수 있다. 참석한 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놀이 자료가 풍부하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졌다.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된 놀이공간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오전은 어린이집, 오후에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상계 5 동 어린이집

교사 힐링 연수 프로그램

▲ 교사 힐링 연수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교사들

지난 11 월 우리 어린이집은 '교사 힐링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교사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교육에 활용토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는 성경모임, 하늘과 바람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숲과 자연의 정취를 만끽해 볼 글램핑팀이 만들어졌다. 음악과 스토리로 힐링하는 공연관람과 베이킹팀도 있었다. 패러글라이딩팀과 글램핑팀은 시간과 날씨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했는데 최고의 경험했다고 말했다.

성경모임팀은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우며 존재감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뮤지컬 팀은 공연스케줄과 365 보육 등으로 1 월에 실시한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필요한 부분을 배워 성장하는 기회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샛별반 박혜린 교사]

늘사랑 어린이집

늘사랑 가을 운동회

▲ 부모참여수업 '늘사랑 가을 운동회'를 마친 학부모와 영유아들

늘사랑어린이집은 지난 11 월 19 일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부모참여수업인 '늘사랑 가을 운동회'를 1, 2 부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1 부에서 영유아들은 학부모와 함께 바구니에 공 넣기, 판 뒤집기, 파도 타기, 버스 타기, 탱탱볼, 달리기 시합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겼다. 2 부 보물찾기는 자녀와 학부모가 마치 탐정처럼 행동하며 쪽지를 찾아 나섰다. 숨겨진 보물 쪽지를 발견하기 위해 곳곳을 살폈고 그 과정에서 찾아낸 쪽지를 들고 함께 흥분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향해 "좋은 추억을 갖게 한 운동회였다", "마음껏 뛸 수 있어 좋았고 자녀와 사랑을 나눈 따뜻한 하루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었다. **[늘사랑반 최수지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우정.강진(총장)	534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용 대표)	100만원(장학)
반종원(이사장)	100만원(운영)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김명희 박수진 박윤복 박창대
박형택 백연주 신지은 연현숙
우종엽 이상용 이영광 이혜선
임은진 정은희

2구좌 국소영 우종엽 이영애 이우진
임주영 정성민 정영용 등대교회

3구좌 민승철 좋은교회

5구좌 김동완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서성식 이혜정

5구좌 김선화 안종헌

41.6구좌 박강재

교직원 및 가족

3구좌 신재윤 양희정

10구좌 최선희

15구좌 이한영

25구좌 이강동

성서선교회

2구좌 신영옥

퇴계원제일교회

10구좌 퇴계원제일교회

일 반

1구좌 권창석 김희권

30구좌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구좌 김포예수사랑교회

10구좌 만나교회

20구좌 (주)소원기건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옥경 강은해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다솔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유미 김유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은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경숙 남범수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문기철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은경 박재신 박종주 박주옥
박창대 박창민 박필종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바울 송성은 송순덕 송원복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성경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채엽 용아름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윤혜자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소윤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믿음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황형록 강해든이
설에스더 신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2만원 고난홍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동원 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문홍 박상수 박재송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나은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왕용분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윤서희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우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희 장은경 장재경
장재원 전수경 전영희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혜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석환 김세련 김윤정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안정민 양연선 유아랑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영섭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장영훈 장혜란 전지혜
정슬기 최선경 최소린 최향서
탁현정 홍예지 황영숙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임수정

5만원 길소윤 김동원 김종남 김준오
김 진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정예나 천유림
최송희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동관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장명헌

11만원 유선미

기부자 명단

12만원 성낙표
15만원 박빛나
50만원 김동우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권순길 기병문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요셉 김은주 김혜미 류한나 박대종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양희 양은성 엄미자 유주연 이광승 이동기 이성란 이은수 이혜진 임동화 장연정 장영철 전계화 전용숙 지중배
2만원 김형태 박혜숙 서성식 송동식 이마리 이영림 이진아 전옥순 정영숙 천광호 함은애 홍은선
3만원 김재임 배정숙 이종권
5만원 김명자 김선주 박선희 박인순 이재현 이지은 정미영
6만원 안태유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종현 김지성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심평강 양승원 유성준 윤명섭 이문자 이은영 이종우 이희주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진달래 최미영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윤정 고진주 구자람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은실 김장호 김진순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정지용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박성범 박인혁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윤혜진 이상일 추연진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이은광 이호섭 장정순
6만원 권순범 이성아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덕현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권경만 김웅기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광삼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3만원 이강동
25만원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100만원 반종원 홍설자
534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이다솜 임재택 최미정 호한나
2만원 이가연 진양희 홍옥주
3만원 권효진 김미화 김현애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장윤정
4만원 박미선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지연
10만원 권정아 이인경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김화영 안미희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30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회

4천5백원 이정숙
9천원 곽규상 김영숙 김은미 이 천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고미숙 권정화 김겸일 김다혜 김덕현 김동석 김배열 김상은 김성진 김유미 김주혜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김희현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인숙 박주형 서영우 서 훈 송인희 송형기 안봉숙 오경모 오종철 용정자 윤도진 윤재필 이관영 이길우 이대우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이주현 장근문 장홍림 전옥순 정갑순 정나영 정선희 정현숙 조영희 조정선 최영태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허진순 황시온
2만7천원 김동수 김사천 유상호 전하준
3만6천원 강규성 김민자 김인영 김인자 김춘환 김희자 박 선 박선하 박온유 박이숙 방미경 양천식 양태환 유정선 유중엽 이경신 이승림 장진희 정도유 조병하 황서린
4만5천원 유형창
5만4천원 김문응 김일선 김현석 민윤옥 송재철 이숙영 장혜린
5만9천원 박태수
7만2천원 이윤봉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길용희 김동선 김원태 박세건 이은실 이정임 최강희 최순남 최정권 최지웅 한진호
16만원 최선희
18만원 권태완 김웅기 최대만
22만원 김미진 윤복순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이태학 정혜란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금촌성서교회
3만원 권순호 김덕규/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5만원 김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벧엘성서동우회
10만원 김용철 송인숙 현희철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홍성일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류계현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송수용 심재순 안애숙 오미라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보경 김성래 김윤숙 김하람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이관헌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행복한교회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손승현 윤미선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서미혜 정동환
27만원 김현철
30만원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무진인터내셔날/이음기업 /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도새기짱/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어린양교회 /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한길교회(김오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가학교회/다드림교회 /미사목민교회 /본도시락 중계점 /사랑샘교회 /상일교회/예일에드컬 /천성교회/하늘누림교회 /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송파)
12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영주교회(경북)/한민제일교회
40만원 도서출판현문사
50만원 동서환경(주)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100만원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소계(20221021~202201120) 40,678,490
누계(20220301~202201120) 772,863,151